

‘시장경제’ 몸살앓는 동유럽출판계

독일·폴란드·체코 3국의 경우

‘동유럽의 격동’이 있는 지 1년. 그동안 예상 훨씬 넘어선 속도로 동서독일은 통일이 이뤄졌다. 동구각국의 역사적인 체제전환은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몰고왔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 나라의 문화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출판은 중심으로 각국의 사정을 알아본다.

독일

지금 베를린은 통일의 흥분은 간데없고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은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고, 동서베를린을 오갈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검문소는 관광지가 되어 베를린장벽의 벽돌조각이나 음식물을 파는 노점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 책을 파는 젊은이도 끼어 있다. 통일과 함께 구동독의 대학도서관에서 폐기처분한 책들을 팔아, 없어진 장학금에 대신하겠다는 젊은이의 좌판에는 「어린이를 위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적 사회주의 용어사전」 등이 들어 있어 그야말로 ‘거리에 늘어난 사회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예전의 동독에선 출판의 자유가 없었다. 외국문학을 주로 출판했던 뤼텐 & 레니히社의 경우 19세기 이전의 고전작품외에, 예컨대 유대인의 문학이나 아르누보에서 표현주의에 이르는 예술에 대한 소개는 불가능했다. 크리스타 볼프, 크리스토프 하인 등 반체제작가의 작품간행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으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출판사의 종이공급량과 검열이 이뤄졌다. 세익스피어 희곡도 번역자가 반체제자로 ‘찍히면’ 출판을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통제가 없어진 지금, 문학의 역할이나 독자의 욕구는 전과 다르다. 정상적인 저널리즘이 없어진 체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세계관을 지니기 위해 문학에 의존해야 했던 인텔리와 학생들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잡지에서 「플레이보이」까지 다양하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구동독의 독자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은 길가 노점에서 판매되는 책들이다. 거기엔 포르노잡지와 성경이 나란히 놓여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사회 저질문화의 투입은 동독의 지식층이 염려했던 바이고, 쿤터 그라스를 비롯해서 반체제작가들은 성급한 통일로 인한 대중의 문화적 혼란에 대해 침묵할 뿐이다. 자유가 실현되고 시장경제화가 이뤄지자 일반시민들은 “생활이 우선이고 책은 아무런 소용없다”는 의식이 지배적이 되었다.

출판의 자유화는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전제에선 가능해도, 자동적으로 보장됐을 때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통일을 이룬 동독의 출판인과 저널리스트들은 이제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변화가. 한 서점의 쇼윈도에 「뉴스위크」지의 광고전단이 역사의 변화를 말하듯 붙여져 있다. 그러한 변화는 거리 곳곳에 벌어진 가두서점에서도 느낄 수 있다. 소련의 수용소에 연행됐던 사람들의 회상록 등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던 책들이 밝은 대낮에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억압에의 저항」 「스탈린평전」 등 마르크스주의 관계의 책이나 공산주의 문헌들은 이제 古本으로 취급, 높은 가격에 팔리는 수급대상이 되었다.

폴란드의 출판은 50개의 국영출판사가 독점해왔다. 자유화 이후 40~50개의 민간출판사가 생겼지만, 원래 폴란드는 지하출판의 오랜 전통이 있다. 하지만 이제 지하출판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무대로 나오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국영과학출판소는 자연과학계의 학술서와 백과사전 등 연간 800종의 신간을 만들며 폴란드의 출판문화를 떠받쳐왔다. 그 소장은 공산당중앙위원회가 임명해왔지만 지금의 소장은 지하출판에서 활동하던 구제고티 보쿠타씨가 직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됐다. 그는 정치선전책자를 만들던 국영출판사들이 자유화 후엔 포르노까지 손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국출판사와의 협력이나 국제공동출판 등 본격적인 출판의 의욕을 보인다. 또한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 등을 지하출판했던 퍼모스트社의 토마스 텅거트씨는 “도서관에 책보내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폴란드와 세계현대의 지식은 젊은이에게 알린다’는 목적으로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1255곳에 약 3만5천종의 책을 기증했다.

반대로 이전에 출판에 간여했던 사람이 손을 떼는 경우도 있다. 문예주간지 「문예생활」의 시부분 편집을 맡았던 타티우스 트리비아크씨는 그 발행사인 국영출판사가 해산되자 고향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예생활」이 체제비판작가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고 문학에는 어떠한 공헌도 하지 않았다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공산당의 방침이 지면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편집장은 당과 깊숙한 관계에 있었다. 시인은 시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고만 말한다.



프라하의 변화기에 있는 가두서점에서 이제는 포르노잡지까지 사볼 수 있다.

폴란드 문화에선 자유경쟁체제로 인해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출판사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 세금경감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학술서출판에 대한 공공자금원조를 고려중이다. 하지만 독자의 욕구와 출판사의 상업성이 맞아 떨어지면서 다양한 출판물이 고루 발전하기 위한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예컨대 “예전의 작가는 실증났고 신진작가는 탄생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것이 생겨났으나 명확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폴란드 문학의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이다.

체코

프라하에서 신간발매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로 정해져 있었다. 서구의 베스트셀러 번역판이 나올 때는 서점앞에 50~100m의 긴 행렬이 늘어선다. 잘 팔린다고 해서 인쇄부수를 늘리진 않기 때문에 제때 구입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난일. 57년의 전통을 지닌 예술서전문서점의 치티니에치크씨는 “자유로이 책을 판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공기의 맛이 다르다”고 표현한다. 또 자유화 이전엔 볼 수 없던 풍경으로 ‘할인판매’가 있다. 표지가 찢어져 파손된 책을 거리에서 반액할인해 판다가, 오래된 책을 할인하는 상설코너를 마련한 알바트로스서점 같은 아동도서관서점 등이 시장경제화된 체코 출판시장의 한면을 보여준다.

그러한 변화는 체코에서 가장 큰 출판사로 꼽히는 파노라마社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세계 각국 문학사 해설서를 연2권씩 간행하던 계획이 책가격이 너무 비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연기됐는가 하면, 간판잡지였던 대중음악지 「멜로디」는 새 경쟁지에 밀려 15만부

의 발행부수를 9만부로 줄이게 됐다. 때문에 250명의 직원을 대폭 감원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회주의청년동맹 출판사였던 ‘젊은전선社’의 블라디미르 피트토리우스씨는 지하출판에서 활동하다 올봄 편집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제까지의 정치선전물 제작을 끝막음하고 본격적인 문예출판에 뛰어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지만, 지하출판 때 맛보지 못했던 시장경제의 중압감에 짓눌린 모양이다. 사실 체코의 출판시장은 연간 총생산액과 맞먹는 재고량이 쌓여있는 데다 노화한 기계를 바꾸기 위한 설비투자는 또다시 인쇄비로 충당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제작비의 앙등과 계속되는 적자가 이제부터 체코의 출판계가 해결할 문제다.

‘프라하의 봄’ 이후 20여년간 체코의 출판은 체제의 억압과 대항하는 최전선에 있었다. 자유가 오자 출판은 ‘사회주의의 자리’를 경제에게 물려주어야 했다. 작년 2월이래 체코공화국에서만 800개의 개인단체가 출판사 등록을 하면서 종교서적에서 탐정소설, 포르노 같은 온갖 책들이 나왔다. 문화가 뒷전으로 밀리고 ‘돈’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전문학술서들의 길길이 어떻게 될지 체코의 많은 지성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피트토리우스씨가 지적하는 출판사와 독자간의 공백은 바로 체코가 직면한 과제를 말해준다.

“팔리지 않는 책도 출판하는 것이 출판인의 책임이다. 정부는 경제개혁에 예외는 없다면서 모든 부문을 ‘자유화’ 하지만, 문화는 시장에 있어서 예외적인 존재이다. 시장경제에 이 문화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